

# “승부처 표심 잡아라”... 이재명·윤석열 막판 ‘수도권 대전’

李, 2030 여성 표심에 집중  
尹, 2030 남성 표심 겨냥  
중도층 공략 막바지 총력전  
선거운동 피날레 장소도 고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수도권 집중 유세에 나선 것은 사전투표에서 수도권 투표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들 대부분이 적극적인 지지층이거나 찍을 후보를 정한 유권자들인 반면 사전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아직까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중도층이라는 점에서 이를 적극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한, 수도권에서 우세 없이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이들 후보의 ‘막판 수도권 대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도지사 시절 정치적 텃밭인 경기도와 서울 등지에서 막판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전략이며, 윤석열 후보도 수도권의 중도층을 겨냥한 마지막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이 후보는 ‘2030 여성 표심’에 집중하면서 중도층을 공략하고, 윤 후보는 ‘2030 남성 표심’을 겨냥하면서 중도층을 끌어안겠다는 전략으로 맞서고 있어 세대별, 성별 최종 투표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선거 막판 아련의 단일화가 사전투표와 본 투표에 미칠 영향에 여야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아련 후보 단일화의 효과를 평가절하하면서 오히려 친문·호남 등 핵심 여권 지지층의 위기감이 고조돼 막판 총결집이 이뤄지는 ‘역풍’이 불고 있다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후보 단일화로 정권 교체에 바라는 표심이 윤 후보 쪽으로 쏠리고 있다면서 공동 유세 등을 통한 ‘컨벤션 효과’를 최대한 발휘해 이대로 승기를 굳히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지역적으로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승부처로 보고 있다. 이 후보는 대선 전 마지막 주말에 서울·경기 지역을 촘촘히 훑었고, 7일 전국 순회한 뒤 마지막 선거 운동일인 8일에도 서울에서 마친표를 찍을 계획이다.

최대 표밭이자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인 수도권에서 우세 없이 대선 승리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세대별로는 부동층이 두터운 2030 표심을 잡는 것이 지상과제로, 청년 정책 등을 통해 이들을 최대한 끌어오기 위한 총력전을 펼칠 방침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외연 확장과 국민통합 메시지를 한층 더 강화한다.

윤 후보 역시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 유세에 막판 화력을 쏟아 부을 방침이다. 안정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수도권 유권자들의 압도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에 따라 여야 대선 후보들이 오는 8일 밤 22일 간의 공식 선거운동 대미를 장식할 피날레 장소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이 후보는 서울 도심에서 대장정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이 후보는 8일 오전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에서 지지층 결집을 호소한 뒤 서울 지역을 돌며 집중 유세를 펼칠 계획이다.

윤 후보 역시 여의도나 광화문 등 서울 중심가에서 마지막 유세를 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대한민국에 봄이 온다’는 콘셉트로 부산에서 시작해 대구, 대전을 거쳐 서울까지 북상하며 정권교체 열기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서울에서 마지막 유세를 벌인다. 아직 장소를 확정짓지 못했지만, 여성과 청년에 친근한 장소를 찾아 진보적인 가치를 강조할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강원·경북 산불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북 울진군 울진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대피소를 방문,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인 4일, 광주 북구 석곡동 분토마을과 죽곡마을 주민들이 경운기를 타고 투표소가 설치된 동행농작업센터에 도착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문 대통령 울진 산불 이재민 위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경상북도 울진 지역 이재민들을 만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울진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대피소를 찾은 문 대통령은 대부분 고령층인 주민들을 만나 바닥에 함께 앉은 상태에서 대화를 나눴고 중간중간 주민들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이 직접 오면 수습도, 복구도 빨라지고 어르신들에게도 위로가 될까 싶어 왔었다”며 “20년 내 제일 큰 규모의 화재라고 하던데 그 와중에 인명피해가 한 분도 없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주민이 “뭘만 빼져나왔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상실감이 크겠나.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으니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위로했다. 그러면서 “국민들 이틀동안 꼬박 텔레비전 앞에서 화재를 보며 안타까워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의 당국자를 향해서는 “물질적 피해는 어쩔 수 없더라도 정신적 피해 부분을 지원해달라. 2019년 강원 산불의 경험이 있으니 그때 경험을 살려 그때보다 더 잘 대응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또 대피 주민들이 임시 사용할 조립주택이나 공공주택 등을 지원해 줄 것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대피소 방문을 마친 뒤에는 화재 현장인 울진군 신화2리를 찾아 피해 상황을 살펴봤다. 이후에는 한국가스공사 삼척 LNG생산기지 본부를 찾아 방호 대책을 보고받았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전국 최고 호남 사전투표율 득실 계산 민주 “지지층 결집” 국힘 “변화의 시작”

코로나 대확산도 영향 미친 듯

20대 대선 사전투표 호남권 투표율이 전국 평균을 큰 폭으로 상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여야의 득실 계산이 분주하다.

호남을 텃밭으로 둔 더불어민주당은 아련 단일화로 위기감을 느낀 지지층이 총결집한 결과라며 반색했다. 반면 이번 선거를 앞두고 호남 구애에 공을 들여온 국민의힘 측에서는 변화가 시작됐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5일 진행된 사전투표 결과 전국 유권자 4419만7692명 중 1632만3602명이 참여해 36.9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전까지 가장 높았던 전국단위 선거 사전투표율은 2020년 4·15 총선 당시 26.69%였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때는 26.06%를 기록했다. 이번 사전투표율은 호남권이 가장 높았다. 전남은 유권자 절반을 넘어선 51.45%의 투표율을 보여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전북 48.63%, 광주 48.27%로 2·3위를 기록했다. 앞선 19대 대선 사전투표에서는 전남 34.04%, 전북 31.64%, 광주 33.67%의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이보다 훨씬 높은 역대 최고급 사전투표율이 나온 것이다.

코로나19 유행에 상호 비방전이 거듭되면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탓에 투표장으로 향하는 이들이 적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보기 좋게 깨부순 것이다.

사상 최고 사전투표율 기록 배경에는 아련 후보 단일화가 첫 손에 꼽힌다.

광주와 전남, 전북의 높은 사전투표율을 두고는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막판 단일화로 인한 위기감이 지지층이 총결집했다고 민주당은 분석한다.

김승남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고흥·보성·장흥·강진)은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마지막 TV 토론회를 마치고 사실상 야합에 가까운 단일화를 하면서 이를 심판하려는 호남권, 특히 전남지역 지지층의 결집을 불러온 것 같다”라며 “코로나 유행으로 본 선거일 혼잡을 피하려고 사전투표에 나선 유권자들도 많았으리라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호남의 (사전) 투표 열기가 뜨겁다. 호남의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ARS 여론조사 수치의 호남 예상 득표율과 비슷해질 것”이라며 “(투표율이) 높아진 만큼 호남의 선택은 진취적이고 변화를 지향하는 방향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한편 수도권 사전투표율은 서울 37.23%, 인천 34.09%, 경기 33.65%로 나타났다. 영남권의 경우 부산 34.25%, 경남 35.91%, 대구 33.91%, 경북 41.02%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광주서 사전투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광주에서 사전투표를 하면서 호남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6일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전남대학교 사전투표소에서 이 대표가 한표를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사전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호남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의 득표율 30%를 달성하고 싶다”면서 “비록 상대 후보보다 더 많은 표를 얻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역사에 기록될 호남 득표율 기록에서 한 표가 더해질 때마다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또 “저희 득표율 수치가 20~30% 정도 나오기 때문에 30%를 달성하고 싶고, (그럴 경우) 광주와 호남의 여러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줄 수 있다”면서 “광주와 호남에 대해 공약한 많은 것들을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가 4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컨벤션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http://www.greenfuneral.kr/

光州市民의 장례식장은, 그린장례문화원!

보내는 이의 호심과 그리움으로 다시찾는, 장의 名家

광주시청에서 10분, 용전사거리에 있습니다.

그린장례문화원

사전상담하시면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린장례식장 임소문 6선!

1. 호남·88·남해C 진출구 전국 어디든 사통팔달
2. 동시 주차 1천대 본관 일체형 주차타워
3. 동시 접대 350명 장군 등 VIP객실 13개소 완비
4. 가격은 저렴하고 품격은 최고의 고감도 의전서비스
5. 세계김치문화축제 대통령상 수상 | 음식 맛 최고
6. 창업주 아내사사이더 정회원 국민나눔대상 수상

상담문의 250-4455

광주광역시 하서로 663길 97(용전동 1213-17)

모던 슬라브목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목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062)531-3530, H. 010-9229-3530